
도시민의 공원녹지 가치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Urban Residents' Values of Open Space

손 상 락(*Sang-Rag Son*)*

윤 병 구(*Byung-Koo Yoon*)**

키워드 : 공원녹지·가치관·창원

Key Word : Open space·Values·Changwon

< 목 차 >

I. 서 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과 방법

II. 기존 관련연구와 이론적 고찰

III. 창원시민의 공원녹지에 대한 가치관 분석

1. 공원녹지 구성요소에 대한 가치관
2. 공원녹지 기능에 대한 가치관
3. 공원녹지 이용목적에 대한 가치관

IV. 종합 및 결론

*경남발전연구원 도시·지역연구실

**계명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I. 서 론

1. 연구배경과 목적

지난 30~40여년간의 고도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급격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도시문제가 야기되었으며, 그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도로·상하수도 등의 도시기반시설 정비에 대한 투자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분별한 개발과 도시환경의 고려 미흡 등으로 인해 도시내에서의 자연환경계와 인공환경계간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도시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경제우선과 개발지상주의 패러다임에 밀려 환경문제의 심각성·공원녹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였으며, 도시계획에서 공원녹지¹⁾는 비생산적 토지이용이라는 사고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항상 뒷전으로 밀렸던 것이 사실이다. 도시내의 공원녹지는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도시기본계획에서 부문계획(공원·녹지계획)으로 다루어지는 정도에 불과하고, 행정층에서도 법적으로 정해진 양만을 확보하는데 급급한 실정이었다. 또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충분한 공원녹지를 적재·적소에 확보하고 남은 땅을 도시적 토지이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적 토지이용을 먼저 배분하고 남은 땅에 또는 주민이 이용하기 어려운 곳을 공원·녹지로 지정했던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 공원녹지마저도 개발압력에 밀려 잠식·훼손되어온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리우환경회담(1992) 이후 지속가능한 개발(ESSD)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뿌리를 내리면서 환경비전21(1995)·전국 그린네트워크 구상·의제21 등을 마련하는 등 자연·생태환경 보전과 공원녹지의 확보·관리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선진외국(일본)에서는 도시계획(Master plan)과 함께 공원·녹지를 체계적으로 확보·관리·보전하기 위해 도시녹지보전법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綠の基本計劃)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의 부문계획 외에는 도시공원녹지를 종합적으로 확보·관리하기 위한 법적·계획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도시계획법·도시공원법상의 공원녹지에 관한 계획기준이 마치 황금법칙처럼 전국 어느 도시에나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의사나 지역특성을 반영할 여지가 거의 없다. 그로 인해 공원녹지는 지역의 역사·문화·지역성을 담아 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경기개발연구원, 2000)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에서는 시민참여를 통한 그리고 지역사회가 도시개발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의 협동적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장소만들기가 되어야 한다

1) 본 연구에서의 공원녹지는 도시계획법상에 규정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협의의 공원 또는 녹지라기보다는 좀더 넓은 의미로서의 공원뿐만 아니라 하천·산림·농경지까지를 포함하는 도시속의 자연으로서 레크레이션·심미·생산·보호·장식·심리적 상징 그리고 보양 등을 주목적으로 하며, 현재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가진 도시지역내의 건물로 채워져 있지 않는 모든 토지와 물로 정의한다.

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지속가능한 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가꾸어가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필수불가결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에서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해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도시만들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도시·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은 시민의 요구(Needs)·의사(Values)와는 무관하게 공급자 위주의 가치체계 및 계획과정(Top-down approach)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계획의 수립·추진(Bottom-up approach)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도시계획에서 환경친화적인 계획추진과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삶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그 일환으로 도시내의 공원녹지 증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원녹지에 대해 도시민·당해 지역주민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사·가치관에 바탕을 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환경친화적인 공원녹지계획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과 방법

공원녹지는 지역주민이 이용하여 그들이 효용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이용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한편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환경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공원녹지에 대한 가치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원녹지에 대한 시민의식을 조사하여 시민의 수요·요구(Needs)에 입각한 공원녹지의 조성·관리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내용과 가설로는, 먼저 창원시민의 공원녹지 구성요소에 대한 가치관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도시민은 행정측에서 계획적으로 조성·공급한 공원녹지 이외에도 도시공간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공원녹지에도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창원시민은 과연 법·제도에 의거하여 조성된 공식적 공원녹지²⁾만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공공에서 지정·공급하지도 않았으나 우리 주위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공원녹지(비공식적 공원녹지)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창원시에 산재해 있는 공원녹지에서 선호하는 것을 선택케 하여 도시민의 공원녹지 구성요소에 대한 가치관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공원녹지는 사회적 여건과 가치관에 따라 변화하는데, 도시공간에서 공원녹지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하는지를 분석·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사회·경제적 속성에 따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도시민의 공원녹지에 대한 가치관도 개인의 사회·경제적 속성에 따라 다르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도시민은 공원녹지를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회·경제적 속성(성·연령·직업·교육·소득·성장환경)

2) 공식적(제도권) 공원녹지는 도시계획법·도시공원법에 의해 지정·조성되는 공원녹지를 말하고, 그 외의 공원녹지는 비공식적(비제도권) 공원녹지로 간주한다(공원녹지 구성요소에 대한 가치관 분석부분 참고).

을 고려하여 공원녹지에 대한 가치관을 분석·검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과 내용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는 문헌조사와 병행하여 공원녹지에 대한 도시민의 가치관을 조사·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사회조사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설문조사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창원시의 각 동별 인구비례에 따라 총 600부를 배부하여 543부를 회수하였으나, 분석에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36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507부를 사용하였다(회수율 84.5%). 본 설문조사는 2000년 8월 25일부터 9월 2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분석을 위한 통계방법은 빈도분석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사회·경제적 속성에 따른 공원녹지에 대한 가치관 분석에서는 χ^2 -Test(Chi-square Test)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I. 기존 관련연구와 이론적 고찰

여기서는 본 연구에서 도시공간속에서의 공원녹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공원녹지의 구성요소·공원녹지의 기능·도시민의 공원녹지 이용목적과 관련한 이론 또는 기존연구에 관해 고찰하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상에 나타나 있는 도시공원과 녹지는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로서 도시계획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도시공원법(제2조1호)에서는 도시공원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제1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이며, 동법 제3조에서는 도시공원의 종류를 세분하고 있다(표1 참조). 녹지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제12조)에 의해 결정된 것(완충녹지·경관녹지)으로서 오늘날 도시공간에 있어서 자연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효율성이 우선시되었던 개발·성장시대에는 도시개발 및 공간이용이 경제적 측면의 고생산성·고도이용에 치중하였고, 계획·정책결정자 또한 그러한 의식에 젖어 도시계획 및 공원녹지정책을 추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도시공간속에서 공원녹지는 비생산적이라는 이유로 도시계획과정에서 항상 뒷전으로 밀려났다(박기조·김철수, 1991). 다른 도시계획 시설이나 용도지역이 우선적으로 배치되고 난 후 남겨진 지역에 공원이나 녹지가 지정되는 경향이 있고, 녹지지역의 경우도 도시적 토지이용이 아닌 남은 지역은 일단 녹지지역으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분히 미래의 도시개발을 위한 유보지역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오규균·이규완, 1995). 즉, 신도시·신시가지 개발시 수익성 위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원녹지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적 기준만을 충족시키고 가급적 축소되어 있고, 기존 시가지내 공원녹지는 개발압력에 밀려 지속적으로 해제·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성장우선의 가치관에 따라 공원녹지의 환경적·생태적 기능과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있기 때문이다(김선희

2001).

도시의 공원녹지란 도시공원과 도시녹지의 합성어로 볼 수 있는데, 협의로는 도시계획법과 도시공원법에 의해 지정된 공원과 녹지를 말하지만, 광의로는 이러한 법규상의 공원이나 녹지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녹지지역뿐만 아니라 하천·산림·농경지·분구원 등까지 포함한 오픈스페이스 또는 녹화된 공간 전부를 일컫는 것으로서(김귀곤, 1996), 현재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가진 도시지역내의 건물로 채워져 있지 않는 모든 토지와 물로 정의할 수 있다(김수봉·김용수, 1992). 그러나 기존 공원녹지정책은 법·제도상의 규정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공식적인 공원과 녹지를 확보하는데 치중하였을 뿐, 도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녹지의 확보·관리에는 소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민은 공식적으로 확보·조성된 공원녹지 외의 것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김수봉, 1997). 성현찬(1999)에 의한 공원녹지의 의미에 관한 분석에서도 공원녹지라고 하면 동네주위의 공원과 어린이공원의 화단·잔디·수목 등의 인공적인 공원녹지(공식적 공원녹지)를 가장 먼저 떠올리고 있으나, 조그만 언덕·경사면의 잡초·수목·잡목림과 대규모 공원·수목원 등의 수목 그리고 산·산림·고원지대 등의 수목 등과 같은 자연적인 공원녹지(비공식적 공원녹지)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 도시내 공원녹지의 구성요소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법·제도에 의해 공공에 의해 공식적으로 공급된 공원녹지든 도시민의 일상생활 주변에 존재하는 비공식적 자연녹지든 도시공간속에서의 공원녹지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공원녹지의 기능에 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Beer(1990)는 공원녹지란 도시내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경관에 반대되는 개념인 자연환경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인간에게 만족할 만한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의 가능한 모든 곳에 자연을 도입·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우리나라의 양윤제(1982)와 홍광표(1985)가 오픈스페이스는 자연적 요소를 도시내에 창출시킬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보전되거나 개발되지 않은 공간이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임승빈(1998)은 공원녹지의 기능으로서 여가공간의 제공·경제활성화 촉진·도시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사회적 교류 증대·도시경관 향상·피난처 및 경작지 제공을, 김승환(2000)은 도시어메니티 향상·도시방재·도시환경 조절·도시개발 조절을 각각 들고 있다. 석인수(1998)는 공원녹지의 기능은 과거에는 자연적인 풍경속에서 주로 정적인 위락기능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점차 정적인 활동은 물론 동적·능동적인 위락활동과 함께 급증하는 도시공해에 따라 환경보전 측면의 기능까지 가미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휴식위락적 기능·사회심리적 기능·생태환경보존적 기능·방재적 기능·중심적 기능·기타기능(자연학습·교육기능)으로 요약하고 있다. 또한 서주환(1990)은 공원녹지는 도시민의 레크레이션·휴양·스포츠·어린이놀이·오락·각종 행사·산책 및 교양 등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수용하고 있는 장소로서의 개발과 도시민의 심리적 불안감을 치유할 수 있는 정신적 휴양처로서의 기능도 담긴 도시녹지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도시민들의 삶의 전반에

결쳐 녹지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박대홍(1993)은 대기오염을 정화하고 확산을 막는 길은 나무를 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도시의 대기오염이 심해질수록 탄산가스의 양은 늘어나고 산소의 양이 줄어드는데, 우리나라의 도시는 대기오염 방지측면에서 조성된 공원녹지는 매우 적기 때문에 대기정화 측면에서 공원녹지 조성의 필요성을, 그리고 이경재(1990)는 현대에 들어와 도시인구가 급증하자 공원녹지기능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면서, 특히 공원녹지의 기능중 환경오염 정화 및 삼림욕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공원녹지의 기능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하는데(김용수, 1997), 이러한 맥락의 조사연구로서 엄봉훈(1986·1988)은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공원녹지기능을 정적 레크레이션 이용·동적 레크레이션 이용·심리적 효용·환경보전으로 설정하여 공원녹지기능의 중요도에 관한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는 1986년 조사에서는 정적 레크레이션기능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심리적 효용·환경보전기능·동적 레크레이션기능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1988년 조사에서는 정적 레크레이션기능이 낮아지고 그 대신 심리적 효용기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환경보전기능과 동적 레크레이션기능에 대한 중요도도 높아졌다는 대구시민들의 공원녹지기능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또한 과거에는 공간의 질이라는 것이 미적 기준이나 기능성에 의해 주로 평가되었다면 현대는 생태적 기준 혹은 친환경적 기준을 같이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하고(양병이, 1995), 도시공원의 기능중에서 생태적 기능은 과거에 미약했던 기능이었으나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패러다임의 변화속에 점차 강조되어지고 있으며, 향후 공원녹지 조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경기개발연구원, 2000). 한편 일본공원녹지협회(1998)는 공원녹지는 전통적으로 존재효과(도시형태 규제효과·환경위생적 효과·재해방지효과·심리적 효과·경제적 효과)와 이용효과(육체적 건강·정신적 건강·레크레이션·교양·문화·향토의식 함양·사회성 증진·커뮤니티활동의 장)가 있으며, 이에 더하여 오늘날에는 자연생태기능(동식물 서식공간)·도시환경기능(도시미기후 조절)·방재기능·자연학습·만남의 장·도시경관 형성 등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시민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기간적 시설이라고 하고 있다.

도시민의 공원녹지 이용목적과 관련해서는 김수봉(1999)은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공원녹지를 이용하는 이유로서 기분전환·운동이나 놀이·친구와의 만남·어린이놀이·자연접촉의 5개 선택지를 설정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머리를 식히기 위해 공원녹지를 이용한다는 것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놀이나 운동을 위해·친구를 만나기 위해 공원녹지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의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경기개발연구원, 2000)에서는 공원이용목적을 만남·행사/모임·관람/구경·운동·경치감상·어린이놀이·휴식/산책 등 8개 항목을 설정하여 물어본 결과 휴식 및 산책을 위한 이용이 가장 많고, 만남과 대화 그리고 아이들의 놀이를 위해 공원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서울시의 공원녹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시민의식조사(서울특별시, 1995)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Ⅲ. 창원시민의 공원녹지에 대한 가치관

1. 공원녹지 구성요소에 대한 가치관

여기서는 창원시민은 도시계획법·도시공원법에 의해 지정·조성되는 “제도권(공식적) 공원녹지”만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행정측이 계획적으로 지정·공급하지도 않았지만 주민들에 의해 자주 이용되고 있고 거주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비제도권(비공식적) 공원녹지”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규명한다. 즉, 창원시민은 평소 어떤 종류의 공원녹지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전국적으로 모든 도시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도시계획법·도시공원법상의 위계성(유형·기능·면적·유치거리)에 의한 공원녹지 공급정책이 과연 도시민들의 욕구충족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뿐만 아니라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도시개발(공원녹지)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제도권 공원녹지는 표1에서와 같이 도시계획법과 도시공원법에 의해 지정·조성되는 공원녹지를 말하고, 그 외의 공원녹지는 비제도권 공원녹지로 간주한다.

이를 위해 창원시에 산재하는 25종류의 공원녹지에 대하여 그들이 좋아하는 것 3가지를 선택하게 하여 나타난 결과는 표2와 같다. 창원시민들은 25종류의 공원녹지에 대해 모두 한번 이상 관심을 나타내어, 현행 법·제도상의 공식적인 공원녹지 이외의 비공식적인 공원녹지도 도시민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도시계획법상의 도시

(표1) 도시공원법상의 도시공원의 계획기준

공원 구분	설치 목적 및 기능	설치 기준	유치거리	규모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정서생활 향상에 기여	제한 없음	250m이하	1,500㎡이상	
근린공원	근린생활권	주로 근린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제한 없음	500m이하	1만㎡이상
	도보권	주로 도보권내 거주자의 이용에 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	제한 없음	1,000m이하	3만㎡이상
	도시계획권	도시계획권내 전체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당해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10만㎡이상
	광역권	하나의 도시계획구역을 초월하는 광역적 이용에 공할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당해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10만㎡이상
도시자연공원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휴양·정서생활 향상	양호한 자연조건 또는 역사적의의가 있는 토지의 보전과 그 적절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치	제한 없음	10만㎡이상	
체육공원	도시민의 건전한 체육활동·레크리에이션을 위한 공원	당해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	제한 없음	1만㎡이상	
묘지공원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제공	정숙한 장소로서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에 설치	제한 없음	10만㎡이상	

계획시설인 도시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이외의 주택정원·학교캠퍼스·가로수·동네야산·도시 주변 산·소규모 운동공원·아파트정원·건물주위 조경공간·거주지 주변 소공원·약수터·동네빈터·시가지내 하천변 녹지 등의 비공식적인 공원녹지에 대해 상당히 폭넓은 관심을 나타내었는데, 전체응답자중 약 70%가 비공식적 공원녹지도 도시내의 중요한 공원녹지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도시계획법·도시공원법상의 위계성을 공원녹지공급의 황금법칙으로 간주하여 추진해오고 있는 공원녹지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결과이다. 다시 말하면 도시민들은 법제상의 면적·이용권 혹은 도시민의 일상생활과 괴리된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공급되는 화려한 공원녹지보다는 그들의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서 소박하지만 그들의 거주지 주변에 조성되어 있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공원녹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녹지는 접근처 녹지라는 경기도내 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성현찬, 1999)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김수봉, 1992)에서는 주택정원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었으나 본 조사에서는 도시공원을 가장 선호하고 있어 약간의 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아파트거주가 보편화되고 정원을 가진 주택이 많지 않은데다 창원시에는 시가지내에 조성되어 있는 도시공원 이외에는 별다른 이용할 만한 공원녹지가 없어서 일반적으로 공원녹지하면 공원을 연상하고 도시공원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현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산공원·팔공산공원 등과 같이 수려한 자연경관이 있어 많은 대구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자연공원이 있는 대구에서는 도시자연공원이 상당히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나, 변변한 도시자연공원·약수터가 없는 창원의 경우에는 대구보다는 약간 저조한 선호도를 보였다. 그리고 동네야산이 대도시인 대구의 경우보다 상당히 높은 선호도를 보인 것은 도보 10분 정도이면 갈 수 있는 시가지내 요소요소의 야산이 간단한 등산을 겸한 아침 산책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이용성향과 지역적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주택정원·학교캠퍼스·가로수·도시주변 산이 상위의 선호도를, 옥상정원·골프연습장·묘지공원·골프장이 하위의 선호도를 보인 것은 기존 연구(김수봉, 1992)와 거의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지역의 공원녹지자원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창원시민은 도시공원을 공원녹지로서 가장 강하게 이미지화되어 있는 가운데, 전체응답자의 약 70%의 사람들이 비공식적 공원녹지(자연적 녹지)를 도시내의 공원녹지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이와 같이 공공서비스로서의 공원녹지를 도시민에게 공급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고, 한편으로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는 공원녹지에 대해 공급측(행정)은 상기와 같은 도시민(수요자)의 공원녹지에 대한 의식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구도시(자연발생적 도시)에서 신도시(계획도시)로 갈수록 자연의 녹지가 필요하다(성현찬, 1999)는 지적과 같이, 계획도시(신도시)로서 공식적 공원녹지(인공녹지)가 지배적인 창원시에도 시민들의 공원녹지 구성요소에 대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비공식적 공원녹지에도 한층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법·제도적인 틀에 의해 공급되는 공식적인 공원녹지뿐만 아니라 거주지 부근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원녹지에도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공원녹지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도시규모와 도시가 가진 공원녹지자원·여건에 따라 선호하는 공원녹지 유형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으므로 당해 지역의 다양한 여건(자연·사회·역사)을 면밀히 조사·연구·반영하여 환경특성과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공원녹지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표2) 선호하는 공원녹지 구성요소(3개 선택)

구 분	빈 도(%)	구 분	빈도(%)
도시공원*	278(20.0)	약수터	40(2.9)
주택정원	169(12.2)	주말농장	38(2.7)
학교캠퍼스	108(7.8)	동네민터	34(2.4)
가로수	101(7.3)	시가지내 하천변 녹지	29(2.1)
동네야산	86(6.2)	가로공원	25(1.8)
도시주변 산	68(4.9)	중앙분리대	18(1.3)
소규모 운동공원	67(4.8)	연못(소규모 저수지)	15(1.1)
도시자연공원*	63(4.5)	사찰	10(0.7)
아파트정원	57(4.1)	옥상정원	5(0.4)
어린이공원*	47(3.4)	골프연습장	2(0.1)
건물주위 조경공간	44(3.2)	묘지공원*	2(0.1)
거주지 주변 소공원	42(3.0)	골프장	1(0.1)
유원지*	41(2.9)	응답자수=507. 응답수=1,390	

주) *표시는 도시계획법·도시공원법에 의해 지정·조성되는 제도권(공식적) 공원녹지임

2. 공원녹지 기능에 대한 가치관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공원녹지기능을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정적 레크레이션기능(휴식·관상 등)·동적 레크레이션기능(운동·유희 등)·심리적 효용기능(인간의 정서순화 효과 등)·환경보전기능(온도조절·공기정화 등)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창원시민은 공원녹지는 인간의 정서순화 등 심리적 효용(33.5%)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다음으로 환경보전기능(32.5%)·정적 레크레이션기능(25.2%)·동적 레크레이션기능(8.7%)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3·그림1 참조). 이러한 결과는 경기도내 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성현찬, 1999)와 맥을 같이 하고,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엄봉훈, 1988)보다 환경보전기능이 한층더 높게 나타났다. 공원녹지의 기능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고 있기 때문에(김용수, 1997) 이러한 결과는 우리의 공원녹지에 대한 가치관이 종래의 장식·관상적인 정적 이용개념에서 점차 탈피하여 심리적·환경보전 기능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공원녹지의 환경보전기능에 대해 상당히 중요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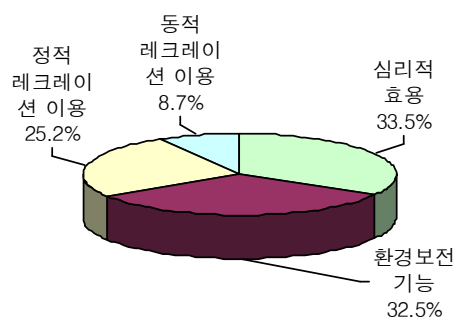
게 생각하고 있고, 기존의 연구결과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은 리우환경회담(1992년) 이후 그동안 자연의 무제한적 개발을 지지했던 自然支配 패러다임이 서서히 사라지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의 패러다임이 확산·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도 개발지상주의에 의한 물질적 풍요보다는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속에서 질높은 삶을 향유하고자 하는 이른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공원녹지는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천하는 주요한 수단으로서 새로운 효용성을 되찾고 있고, 생태도시를 만들고 가꾸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황기원, 1998)는 지적과 일치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도시행정과 계획에서 공원녹지는 시민의 여가공간 확보라는 차원이 우선시되어 왔으나 현대도시의 생태적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환경요소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고, 최근 악화되어 가는 도시환경의 질적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급증하고 있다(황기원, 1998). 따라서 공원녹지는 단순히 정적·동적 레크레이션 등의 기능 위주가 아니라 인간의 정서순화와 환경보전기능을 한층더 중요시하여 공원녹지정책을 추진할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우리의 공원녹지 구성개념이 보다 푸르름이 풍부한 울창한 수림 위주로 조성·관리되어 공원녹지는 “도시속의 자연·허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앞에서 선호하는 공원녹지유형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이제 우리는 도시속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비공식 오픈스페이스의 생태·환경보전효과에 눈을 돌려야 한다(이창우, 1999)는 것을 깊이 명심할 필요가 있다.

(표3) 공원녹지의 기능에 대한 가치관

구 분	빈 도(%)
심리적 효용 (인간의 정서순화 효과 등)	170(33.5)
환경보전 기능 (온도조절·공기정화 등)	165(32.5)
정적 레크레이션 이용 (휴식·관상 등)	128(25.2)
동적 레크레이션 이용 (운동·유희 등)	44(8.7)
합 계	507(100)

(그림1) 공원녹지의 기능에 대한 가치관



3. 공원녹지 이용목적에 대한 가치관

사람들의 가치관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공원녹지의 이용목적 또한 각 개인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여기서는 각박한 반복되는 도시사회의 일상생활에서 벗어나(해방감) 도시속의 자연적 요소로서의 공원녹지를 찾아 자연풍치를 즐기면서 맑은 공기를 만끽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심리적 위안의 목적에서 공원녹지를 이용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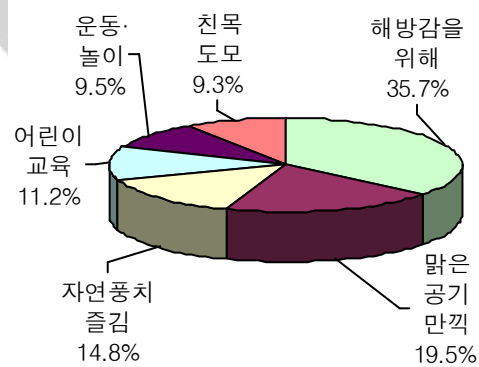
것, 그리고 운동·놀이·친목도모·어린이교육 등과 같은 사회적 목적으로 공원녹지를 이용하는 것을 개인속성별(성·연령·직업·학력·소득·성장환경)로 분석하였다. 도시민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공원녹지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창원시의 현 실정에 적합한 공원녹지정책의 자료를 제시하고, 도시내에 존재하는 공원녹지가 도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규명할 수 있으므로 의미있는 것이 될 것이다.

표4와 그림2는 창원시민의 공원녹지 이용목적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창원시민은 공원녹지를 이용함으로써 일상적인 도시생활로부터 벗어나서 해방감을 느끼고자 하는 것(35.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맑은 공기 만끽(19.5%)·자연풍치 즐김(14.8%)·어린이교육(1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도시내의 무미건조한 건축물환경(인공환경계)보다도 도시내의 자연으로 대표되는 공원녹지(자연환경계)를 찾아 평소의 생활에서 벗어나 맑은 공기와 자연풍치를 즐기면서 해방감을 느끼고,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주로 공원녹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운동·놀이·친목도모 등과 같은 사회적 목적보다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자연을 접하면서 해방감을 느끼고자 하는 심리적 위안(욕망)을 위해 공원녹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시민들의 공원녹지 이용목적에 충분히 감안하여 공원녹지의 조성·유지·관리를 위한 다양한 시책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4) 공원녹지의 이용목적

구분	빈도(%)
해방감을 위해	181(35.7)
맑은 공기 만끽	99(19.5)
자연풍치 즐김	75(14.8)
어린이교육	57(11.2)
운동·놀이	48(9.5)
친목도모	47(9.3)
합계	507(100)

(그림2) 공원녹지의 이용목적



공원녹지 이용목적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간의 차이에 대해 유의성이 있는지 χ^2 -Test를 한 결과 매우 유의($p < 0.001$)한 것으로 나타났다(표5 참조). 남녀 공히 전체적인 경향과 유사하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에서 잠시나마 해방감을 느끼면서 맑은 공기를 만끽하기 위해 도시민은 공원녹지를 이용하는 경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해방감·자연풍치 즐김·어린이 교육에, 그리고 남성은 운동·놀이·친목도모에 여성보다 더 높은 이용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심리적 위안(욕구)을 위해, 그리고 남성은 여성보다 사회적 목적으로 공원녹지를 이용하고 있어 성별로 공원녹지 이용목적에 대

한 가치관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여성(36.8%)이 남성(33.6%)보다 해방감을 느끼기 위해 공원녹지에 가고 싶다는 의견이 한층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36%)이 여성(32%)보다 한층더 도시생활을 벗어나 조용한 곳을 찾기 위해 공원녹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기존 연구(김수봉, 1996)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는 우리나라는 아직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활동이 상대적으로 낮아 남성보다 대인접촉의 기회가 적어 단순한 가사생활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한층더 강한 것이 잘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5) 성별로 본 공원녹지의 이용목적

(단위 : 빈도 %)

구 분	남 성	여 성	합 계
해방감을 위해	59(33.6)	122(36.8)	181(35.7)
맑은 공기 만끽	36(20.5)	63(19.0)	99(19.5)
자연풍치 즐김	25(14.2)	50(15.1)	75(14.8)
어린이교육	9(5.1)	48(14.5)	57(11.2)
운동·놀이	32(18.2)	16(4.8)	48(9.5)
친목 도모	16(11.0)	32(9.7)	47(9.3)
합 계	176(100)	331(100)	507(100)

$\chi^2=31.25661$. $df=5(p<0.001)$

연령별 이용목적의 경우(표6 참조), 10대들은 친목도모(44.4%)와 자연풍치 즐김(27.8%)에 비중을 두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20~40대는 해방감을 느끼기 위해 공원녹지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아직 초등학생 또는 그 이하의 어린이가 있는 30~40대의 경우 어린이교육을 위해 공원녹지를 이용한다는 비율(각각 17.6%·11.2%)이 다른 어느 연령계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10대(청소년)와 50대 이상(노인층)의 연령계층이 친목도모를 위해 공원녹지를 이용하는 것에 주목하여 이들의 취향에 맞는 공원의 공간구성과 시설도입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연령에 따라 공원녹지의 이용목적이 다르다는 것이 유의($p<0.001$)한 결과를 얻었다. 직장·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20~40대(청장년층)는 일상생활로부터 벗어나 해방감을 느끼면서 맑은 공기를 만끽하기 위해 공원녹지를 이용하는 경향이 강하고, 청소년과 노인층은 해방감·맑은 공기 만끽과 아울러 친목도모를 위해 공원녹지를 이용하는 것에 한층더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표6) 연령별 공원녹지의 이용목적

(단위 : 빈도 %)

구 분	10 대	20 대	30 대	40 대	50대이상	합 계
해방감을 위해	5(27.8)	25(51.0)	65(38.2)	70(34.0)	13(25.0)	181(35.7)
맑은 공기 만끽	0(0.0)	7(14.3)	25(14.7)	50(24.3)	17(26.6)	99(19.5)
자연풍치 즐김	5(27.8)	7(14.3)	18(10.6)	36(17.5)	9(14.1)	75(14.8)
어린이교육	0(0.0)	0(0.0)	30(17.6)	23(11.2)	4(6.3)	57(11.2)
운동·놀이	0(0.0)	6(12.2)	17(10.0)	19(9.2)	6(9.4)	48(9.5)
친목 도모	8(44.4)	4(8.2)	15(8.8)	8(3.9)	12(18.8)	47(9.3)
응 답 자 수	18(100)	49(100)	170(100)	206(100)	64(100)	507(100)

$$\chi^2=76.96854. \quad df=20(p<0.001)$$

직업에 따라 공원녹지 이용에 대한 가치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p<0.001$)(표7 참조). 전체적으로 도시민의 심리적 욕구(해방감·맑은 공기 만끽·자연풍치 즐김)에 의해 공원녹지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레크레이션(운동·놀이 등)이나 사회적인 목적(친목도모)을 위한 것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정신·육체적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시민들은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자연풍치를 즐기고 해방감을 느끼기 위해, 그리고 학생들은 해방감·친목도모를 위해, 주부들은 해방감·어린이교육을 위해 공원녹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직장을 가진 기성세대와 학생들은 번잡하고 바쁜 직장생활과 학교생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들의 심리적 욕구에서 기인하며, 주부들은 일상의 가사생활에서 벗어나고(해방감) 어린이 교육에 보다 많은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7) 직업별 공원녹지의 이용목적

(단위 : 빈도 %)

구 분	사무직	생산직	학 생	주 부	무 직	합 계
해방감을 위해	41(21.0)	24(26.4)	14(37.8)	80(53.3)	22(64.7)	181(35.7)
맑은 공기 만끽	55(28.2)	25(27.5)	5(13.5)	12(8.0)	2(5.9)	99(19.5)
자연풍치 즐김	40(20.5)	16(17.6)	4(10.8)	14(9.3)	1(2.9)	75(14.8)
어린이교육	31(15.9)	9(9.9)	0(0.0)	16(10.7)	1(2.9)	57(11.2)
운동·놀이	21(10.8)	9(9.9)	4(10.8)	10(6.7)	4(11.8)	48(9.5)
친목 도모	7(3.6)	8(8.8)	10(27.0)	18(12.0)	4(11.8)	47(9.3)
합 계	195(100)	91(100)	37(100)	150(100)	34(100)	507(100)

$$\chi^2=104.29875. \quad df=20 (p<0.001)$$

다음으로 교육수준에 따른 공원녹지 이용목적의 경우(표8 참조), 일상적인 사회생활(직장·가정)로부터 벗어나 해방감을 느끼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연풍치를 즐기기 위해 공원녹

지를 방문·이용하고 있으며, 학력이 높아질수록 해방감·어린이교육·운동·놀이를 공원녹지의 이용동기로서 다소 더 비중을 두었다. 도시민의 공원녹지 이용목적에 대한 가치관은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이 χ^2 -Test결과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p<0.01$)

(표8) 학력별 공원녹지의 이용목적

(단위 : 빈도 %)

구 분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졸업 이상	합 계
해방감을 위해	12(28.6)	111(35.2)	58(38.7)	181(35.7)
맑은 공기 만끽	4(9.5)	71(22.5)	24(16.0)	99(19.5)
자연풍치 즐김	9(21.4)	45(14.3)	21(14.0)	75(14.8)
어린이교육	3(7.1)	35(11.1)	19(12.7)	57(11.2)
운동·놀이	3(7.1)	27(8.6)	18(12.0)	48(9.5)
친목 도모	11(26.2)	26(8.3)	10(6.7)	47(9.3)
합 계	42(100)	315(100)	150(100)	507(100)

$\chi^2=23.72383$. $df=10(p<0.01)$

표9는 소득수준별 공원녹지의 이용목적을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으로는 소득수준에 따라 특별한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p<0.2$). 즉,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일상생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공원녹지를 이용하는 목적이 낮아지는 반면,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자연풍치를 즐기면서 어린이교육을 위해 공원녹지를 이용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모든 계층에서 해방감에 가장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것과 다른 개인속성(성·연령·직업·학력·성장환경)에 따른 공원녹지 이용목적과는 달리 유의성이 매우 낮은 것은 기존 연구(김수봉, 1995)와 유사한 결과이다.

(표9) 소득수준별 공원녹지의 이용목적

(단위 : 빈도 %)

구 분	150만원이하	150~200만원	200~250만원	250만원이상	합 계
해방감을 위해	42(35.3)	75(36.9)	46(36.8)	18(29.5)	181(35.7)
맑은 공기 만끽	23(19.3)	44(21.7)	17(13.6)	15(24.6)	99(19.5)
자연풍치 즐김	19(16.0)	25(12.3)	19(15.2)	12(19.7)	75(14.8)
어린이교육	9(7.6)	24(11.8)	15(12.0)	9(14.8)	57(11.2)
운동·놀이	12(10.1)	19(9.4)	12(9.6)	5(8.2)	48(9.5)
친목 도모	14(11.8)	15(7.4)	16(12.8)	2(3.3)	47(9.3)
합 계	119(100)	203(100)	125(100)	61(100)	507(100)

$\chi^2=19.41820$. $df=15(p<0.2)$

한편, 과거의 성장환경(도시지역 또는 농촌지역)이 현재의 자연환경적 선호와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Cooper Marcus, 1978·예경록, 1996)가 있는 바와 같이, 성장환경에 따라 현재의 공원녹지 이용목적에 대한 가치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1$). 도시지역에서 성장한 창원시민은 도시생활·직장생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해방감을 위해)와 운동·놀이에서 농촌지역에서 자란 사람보다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다. 이에 비해 농촌지역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사회적 목적(친목도모)·어린이교육·자연접촉(자연풍치 즐김·맑은 공기 만끽)에서 도시지역 성장배경의 사람보다 한층더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 결과는 아동기에 농촌적 자연과 접하는 것은 농촌의 자연을 心象風景化하여 성인이 되어서 자연과 공생하려는 가치관에 도움을 준다(예경록, 1996)는 자연에 대한 가치관 형성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시절부터 자연에 대한 체험과 환경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10) 성장지별 공원녹지의 이용목적

(단위 : 빈도 ·%)

구 분	도시지역	도시주변	농촌지역	합 계
해방감을 위해	40(34.8)	31(43.7)	110(34.3)	181(33.7)
맑은 공기 만끽	29(25.2)	8(11.3)	62(19.3)	99(19.5)
자연풍치 즐김	19(16.5)	17(23.9)	39(12.1)	75(14.8)
어린이 교육	3(2.6)	3(4.2)	51(15.9)	57(11.2)
운동·놀이	14(12.2)	7(9.9)	27(8.4)	48(9.5)
친목 도모	10(8.7)	5(7.0)	32(10.0)	47(9.3)
합 계	115(100)	71(100)	321(100)	507(100)

$\chi^2=30.41231$. $df=10(p<0.001)$

IV. 종합 및 결론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환경의 세기를 맞이하여 지속가능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원녹지의 구성요소·기능 그리고 이용목적에 대한 도시민의 가치관은 어떠한지를 파악하여, 공원녹지에 관한 계획수립과 정책을 전개함에 있어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먼저, 도시민은 계획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도시공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 즉 주택정원·학교캠퍼스·동네야산·도시주변 산·아파트정원·어린이공원 등에 친근감이 있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측에서 법·제도에 의거하여 공급한 공

식적인 것만이 공원녹지가 아니라, 도시민은 광의의 개념으로서의 공원녹지를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행정은 관리자 중심이 아니라 다수의 수요자 가치체계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시계획법·도시공원법에 의해 위계성에 의거하여 공식적인 공원녹지의 확보에 치중해오던 공원녹지정책은 제고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고 지역민을 위한 실질적인 공원녹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도시계획법·도시공원법에 의거한 공식적인 공원녹지 조성·관리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친밀감을 갖고 있는 공원녹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행정·계획가는 기존의 공원녹지 구성요소 및 정책에 대한 마인드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공원녹지가 수행해야 할 역할(기능)에 대해 정적·동적 레크레이션 이용보다 각박한 도시생활을 하고 있는 도시민의 정서순화(심리적 효용)와 악화되고 있는 도시환경의 보전기능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보전기능이 80년대 후반에 이루어진 기존 연구결과(엄봉훈, 1986·1988)보다 한층더 높게 나타나, 이는 악화된 도시환경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도시환경의 쾌적성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전통적인 공원녹지기능으로서 시민의 여가공간 확보차원뿐만 아니라 도시환경을 건강하게 만들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이룩하기 위한 공원녹지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창원시민(도시민)은 전반적으로 공원녹지를 운동·놀이·친목도모 등의 레크레이션이나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보다는 복잡하고 각박한 도시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잠시나마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해방감을 느끼면서 맑은 공기와 자연풍치를 즐기는 심리적 욕구(위안)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원녹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원녹지의 이용에 대한 가치관은 도시민의 사회·경제적 속성(성별·연령·직업·학력·교육수준·소득수준·성장환경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지속가능한 삶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법·제도 및 위계성에 의거한 공식적인 공원녹지 위주의 공원녹지정책은 도시민의 공원녹지에 대한 가치관과 다소 괴리가 있으므로 도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공원녹지계획 수립과 시책전개가 필요하다. 아울러, 공원녹지가 인공적인 시설이 많이 도입되고 도시민의 정적·동적 레크레이션 장만이 아니라 환경적 기능과 아울러 인간의 심리적·정서적 위안을 주는 도시속의 자연(Nature in the City)이 될 수 있도록 공급·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민의 공원녹지에 대한 가치관을 조사·분석함으로써 공원녹지정책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다음 연구에서는 도시민의 의식조사에 바탕을 둔 공원녹지의 개발 및 관리방향과 관련한 분석을 후속연구로 제시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1) 경기개발연구원, 신도시 공원기능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2000.
- 2) 김 귀곤, 도시공원녹지의 계획·설계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p.353.
- 3) 김 선희,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전략, 시민환경연구소 편, 생태도시로 가는 길, 도요새, 2001, pp.27~73.
- 4) 김 수봉·김 용수, 대도시 공원녹지의 역할에 관한 연구(I), 한국조경학회지(19-4), 1992, pp.1-11.
- 5) 김 수봉,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효과적 도시환경계획의 방법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31-5), 1996, pp.79~94.
- 6) 김 수봉, 진해시 환경녹지 계획정책에 관한 연구, 환경정책(5-1), 1997, pp.155~168.
- 7) 김 수봉, 대구시 환경녹지 계획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17-3), 1999, pp.99~111.
- 8) 김 승환, 도시공원과 녹지체계, 임정덕·황영우 편, 부산도시론, 부산발전연구원, 2000, pp.151~172.
- 9) 김 용수, 대구시 녹지공간 확보방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시정연구(17), 1997, pp.605~640.
- 10) 박 기조·김 철수, 도시계획론, 형설출판사, 1991.
- 11) 박 대홍, 생활과 기후, 영남일보, 1993.
- 12) 서울특별시, 서울시 공원녹지 정책방향 연구, 1995.
- 13) 서 주환, 도시녹지와 생활환경, 도시문제 1990.
- 14) 석 인수, 도시공원의 실태와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도시문제(353), 1998. 4, pp.109~118.
- 15) 성 현찬 외, 도시녹지정책수립을 위한 주민의식조사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34-1), 1999, pp.145~154.
- 16) 양 병이, 지속가능성 지표에 의한 우리나라 주거단지의 환경친화성 평가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31-2), 1997, pp.89~106.
- 17) 양 윤제, 도시환경과 녹지, 한국조경학회지(10-1), 1982, pp.27~29.
- 18) 엄 봉훈, 대구시 공원녹지의 만족도평가 및 녹지의식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새마을연구논문집(6집), 1986, pp.61~85.
- 19) 엄 봉훈, 대구시민의 녹지의식 및 공원녹지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새마을연구논문집(8집), 1988, pp.71~86.
- 20) 오 구균·이 규완, 광주광역시 공원녹지 현황과 개선대책, 광주광역시 시정연구(13호), 1995, pp.5~29.
- 21) 이 경재, 서울시 녹지현황과 구조적 특성, 도시문제, 1990.
- 22) 이 창우, “시민과 함께 만드는 녹색도시”,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시민의 도시, 한울, 1999, pp.205~226.
- 23) 임 승빈, 조경이 만드는 도시, 서울대학교출부, 1998, pp.72~73.
- 24) 홍 광표, 오픈스페이스 체계수립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13-1), 1985, pp.100~101.
- 25) 황 기원, 공원녹지계획,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계획론, 보성각, 1998, pp.423~451.
- 26) Beer, A. R, Environmental Planning for Site Development, E. & FN. Spon, 1990.
- 27) Copper Marcus, C, Remembrance of Landscape Past Landscape, Vol.22, 1978, pp.35~43.
- 28) 芮 京祿, 居住環境における自然體驗と環境意識に関する研究, 日本千葉大學 博士論文, 1996.
- 29) 日本公園綠地協會, 公園綠地 マニュアル, 1998, pp.3~29.
- 30) 日本公園綠地協會, 綠の基本計劃ハンドブック, 1997.

— <ABSTRACT> —

A Study on Urban Residents' Values of Open Space

Sang-Rag Son(Senior Research Fellow, Kyongnam Development Institute)

Byung-Koo Yoon(Professor, Keimyung University)

A municipal government needs to develop urban policies based on the residents' needs for agreeable urban environments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s. This study, therefore, offers basic research data and results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s and open space policies by research and analysis about the people's values on open space. The results are followings:

Above all, the residents prefers house gardens, village hills, school campuses and pocket parks as well as official open spaces, such as, urban parks.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change the open space policy which has focused on official urban parks under the urban planing law and the urban park law. Secondly, they recognize the roles of open spaces as residents' emotion purification(psychologistic utility) and environment preservation. Thirdly, they have used the open spaces for psychologistic, emotional consolation, such as, liberation sentiments, clear airs and natural scenes, rather than a social purpose, such as, sports, recreations, games and friendly relations, and were different according to people's socio-economic attributes.

Hence, the government needs to develop a sustainable open space policy based on the residents' cognitions and needs with local characteristics

Key Word : Open space·Values·Changwon